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홍해작전의 불길을 세계로

내일부터 홍해작전 및 김치세미나준비 새벽기도회
오늘 2시 30분에 설명회

제4차 홍해작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하여 내일(27일)부터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홍해작전 및 김치(KIM-CHI) 세미나 준비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충현의 성도들이 이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해작전과 김치(KIMCHI) 세미나가 기도와 영적 갱신의 불길을 아시아와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홍해작전 참모본부는 이번 홍해작전이 은혜 가운데 마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26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 설명회에는 교역자,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다락방장, 다락방장, 교사, 찬양대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구 모임은 설명회를 마친 후에 갖는다고 한다.

또 참모본부는 제4차 홍해작전이 하나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혼탁한 민족 사회의 장래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고 있다. 즉 총진군일인 6일과 16일에는 전교인이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다락방장들로 하여금 참가예상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각 지대는 교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지대별 총동원 일정을 아래와 같이 잡았다.

◆ 홍해작전 지대별 총동원 일

일자	6.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총	1	2	7	3	6	2	7	3	1	총	
지	진	4	5	8	9	10	4	8	9	13	진
대	군	6	12	14	13	11	5	16	11	15	군
일	10	17	16	18	15	12	17	14	19	19	일

◆ 홍해작전 준비 위한 예비 새벽기도회 주력교구

일자	5.27	28	29	30	31	6.1	2	3	4	5
주력교구	1, 17	2, 16	3, 15	4, 11	5, 12	6, 13	1, 2, 3, 7, 14	4, 8, 15	9, 16	10, 17

제2회 김치(KIMCHI)세미나 28일 개최 중국어권 목회자 64명 참가

국제 선교와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원장 이종윤 위임목사)이 주관하는 제2회 김치(KIMCHI)세미나가 드디어 28일부터 6월 7일(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8개국 64명의 중국어권 목회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김치(KIMCHI)세미나는 “2천년대를 향한 우

리의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14차례의 강의와 선교보고, 선교전략수립, 교회 유관 기관 탐방 등 다채로운 순서들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교회와 외국 교회 사

이에 유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로 하여금 외국 교회의 헌신을 배우게 하고 선교전략을 모색케 하며, 아시아 및 전 세계 교회에 교회 갱신과 성장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회 충현올림픽 폐막

5천7백여명의 충현인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제1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회 충현올림픽의 합성이 체육관을 진동하면서 은혜 중에 잘 치뤄졌다.

지난 21일 믿음·소망·사랑·충성의 4개팀이 제각기 특색있는 응원전과 각 경기에서 열기있는 장면들을 속출하면서 흡사 아마추어 아닌 프로에 준하는 솜씨들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서로가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과 화해와 영광의 잔치로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특기할 것은 기획의 치밀성, 밀도있는 진행과 연출이었다. 더욱 진보를 보인 가장행렬, 특히 질세라 불을 뿜는 응원, 구기경기에서의 박진감 등은 일품.

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대회

장 이종윤 위임목사께서 시상하였다.

◆대회성적

●단체상(종합)

온유상 : 사랑 겸손상 : 소망
절제상 : 충성 인내상 : 믿음

●응원상

온유상 : 믿음 겸손상 : 충성
절제상 : 소망 인내상 : 사랑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L권사님,

“교회에서 왜 김치바자회를 하느냐”는 이웃 교회 성도의 질문에 우리 교회의 국제적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셨다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권사님께서 받으신 질문과 유사한 문의가 많은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국내적으로는 월요일마다 전국 목사님들을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여 8학기째 일만여명의 목회자들께서 자기 갱신을 위한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적으로 적용하여 해외에 계신 목회자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국제 선교와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영어 첫자들을 모아 ‘김치’라고 한 것입니다. 88세계 올림픽대회 이후 ‘김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현교회는 김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영적 입맛을 돋구어주고 교회를 갱신케 하려 합니다.

지난해에 동구권 목회자들이 김치프로그램에 참석한 후 이미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지에서는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는 낭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김치 동문들이 주동이 되어 동구라과 북음화대회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제2회 김치세미나에는 중국어권 목회자들이 초청되었고, 8월 27일부터 있을 제3차 세미나에는 힌두교권 목회자들이 초청될 것입니다.

충현의 가족들은 제4차 홍해작전을 목전에 두고 오는 28일부터 제2차 김치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으로 중국대륙복음화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권사님과 성도들이 더욱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26

이 중 윤 목사

김창인 원로목사 선교 여행 마치고 귀국

김창인 원로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김창인 원로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한편 귀국 다음날인 21일에는 제3회 충현올림픽에 참가하여 개최배에서 축도를 하고,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충현살롬경로대학 야외학습 30일, 31일 설악산에서

충현살롬경로대학이 설악산에서 야외학습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경로대학생 뿐 아니라, 주위의 노인들에게도 참가를 권유하였다.

30일(목)과 31일(금) 2박3일 동안 설악산, 낙산, 경포대를 돌아보면서 자연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30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며, 회비는 4만원이다.



제2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강의 요지

이 종 윤 목사

성장하는 한국 교회의 위기와 그 대책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6:4~9)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선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엡4:11~16)

1. 교회의 성장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고전3:6)고 한 바울의 말씀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의 사역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되 사람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한국 교회의 성장 진단

현대 한국사회는 ‘개발’과 ‘근대화’라는 두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동을 뜻하며, 후자는 경제성장을 포함한

사생하는 유혹과 죄유 등을 통한 양도적 절입입니다.

(2) 강조점의 위기

오늘 한국 교회도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보다는 세상적 행복추구와 소원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생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인의 요구를 간파한 교역자들은 낚시밥을 던져야 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사고와 행동원리를 강단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많은 교인을 얻고 소위 성공한 목사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축복과 약속의 분배가 마치 어느 목사의 전유물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국 복음을 강조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마니즘적, 인본주의적 기복사상은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란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5) 조직의 위기

한국 교회안에도 회중의 복합성 내지는 다양성 때문에 조직이 가져오는 병폐또한 심각합니다. 교회직분에 대한 물 이해(계급의식)와 모독하는 태도(매관매직)가 한국 교회 안에 부식되어 있습니다.

(6) 자기 동일성의 위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구실로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혼합주의 또는 통일종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7) 위선의 위기

신앙과 신학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양의 가축을 쓴 이리 같은 교역자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심판전야와 같은 무서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갈 때만 신자가 되는 파트타임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 성도들의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형태가 곧 교회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8) 편견의 위기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편견은 지방색과 인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파간의 장벽은 교리적인 차이보다는 감정과 경험과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 복음에 대한 절대 신념을 갖지 않으면 지도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2) 성장 중의 위기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다보면 부지중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이 교회를 좀먹는 죄의 씨가 될 경우에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성장하는 중에 많은 아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대하다보면 자기몸을 유지하기 위해 주는 자의 생활이 결여되고 성장이 느린 자에 대한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게 됨으로 기도생활이 부족하게 됩니다.

4. 한국 교회의 방향과 진로

(1) 예언자와 사도정신 회복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와 하나님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자기 헌신은 물론 이 복음을 타인에게 증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회개 운동을 통한 갱신과 복음 전도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 한국 교회에 생동력 있게 솟아나야 합니다.

(2) 종교개혁 정신 회복

사도 정신과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을 통해 성장을 지향해야

(9) 우선권의 위기

오늘의 한국 교회에 성전건축, 구제, 선교, 조직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며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한 봉사입니다.

(10) 전략상의 위기

한국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회생하는 생활원리 대신 감정과 이성 앞세우면 전략상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1) 지도자의 위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중에 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떠남으로 지도자의 위기에 처했으나 사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했고 책임의식을 가진 헌신적인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무사기한 정신과 자기 희생정신은 오늘 교권쟁탈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사랑과 용서, 투철한 연합정신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

성경보다는 교권주의를, 은총보다는 물량주의를, 믿음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말씀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3) 몸으로서의 교회 역할 회복

교회를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여겨 상호보완과 증으로 이룬 교파간의 담벽을 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5. 결 론

오늘의 위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불안과 위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절대 권위로 받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되, 사람에게도 맡겨진 책임

사회제도 전반의 조직과 기능, 문화적 생활면 전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급격한 개발과 경제성장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의식구조에는 경제제일주의의 사상이 팽배하여졌고 이 같은 가치관이 교회에까지 파급되게 되어 가시적이고 양적인 팽창, 외형적 성장 일변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3. 한국 교회의 위기

(1) 극단적 개교회주의의 위기

오늘날 지적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개교회의 대형화 경향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의 개념을 상실한 채 개교회주의에 빠져 자기 교회만을 중요시하고 이웃 교회나 약한 교회를 돌보지 않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붕괴 위기에 있는 어촌과 광산촌 교회를 돌보지 않고 개교회의 확장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도시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가져온 병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자생존의 철학이 목회자나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 이웃 교회와 선의의 경쟁, 철저한 대결 내지는 적대감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적 팽창은 사도 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경쟁심리가 위험요소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낳은 가장 무서운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론적 사고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만이 거룩한 것이고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악마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회생이나 헌금강요, 시간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박해와 유혹의 위기

초대 교회는 내외적으로 무서운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행7:59, 8:1). 교회는 외형적인 위협과 고난을 통하여 오는 박해의 위기도 많지만 때로는 소리없이 오는 유혹의 위기도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가진 자에 대한 특대와 교회의 상류화 현상은 교회의 복을 조이는 위기의 조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정치적 또는 타종교로부터의 박해가 온다면 목숨이라도 걸고 싸울 인물이 일어나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 앞에서는 항복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4) 불가견적 성령 임재의 위기

한국 교회는 아직도 가시적이고 공간적 신앙에 집착한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흐리게 하는 무서운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듯 한국 교회가 복을 조성하는 전신적 효과만을 노리는 얕은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는 한 성령운동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는 계속 혼

사랑과 교제의 즐거운 천국 잔치

아쉬움 달래며 93년 제4회 충현올림픽 기약

높은 하늘, 푸른 수목, 맑은 기상, 여기 제3회 충현올림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그 역사적인 막이 올랐다.

각 팀마다 승리를 다짐하며 최선을 향해 뛰고자 하는 선수들의 결의가 충천(衝天)한 가운데 입장식을 첫 순서로 개막되었다. 고운 한복의 피켓걸 신나미 양(제10교구)의 입장과 뒤를 이은 충현올림픽기(旗)의 입장이 있은 후, 믿음팀의 가장행렬 "예루살렘 입성"의 순서가 있었고, 소망팀의 가장행렬 "홍해작전"이 이어졌다. 갈라지는 홍해 연출은 큰 갈채를 받았다. 충성팀은 "세계를 교구"를 주제로 고무잡잡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등장시켰다.

집행위원장 우기전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서 대회장 이종운 위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경주자의 마음가짐은 겸손의 옷을 입고 달음질하여야 하며 뒤

를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하며, 법대로 경주하되 더불어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개회 예배는 명예대회장 김창인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쳐졌다. 이어서 이종운 위임목사의 개회선언, 선수선서, 심판서약이 있었다.

"모였노라, 잡았노라, 이기었노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된 충현올림픽은 일신여상 관악대의 연주로 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즐거운 천국잔치에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발걸음도 즐겁게 줄에 줄을 이어 입장을 시작하니 끝나는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입장객이 끊이지를 않았다. 가정 사정으로 아침부터 참여할 수 없었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늦게 도착한 성도들은 오전에 있었던 경기 내용을 물으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들이었다.

집집마다, 식구마다 다락방별

로 복도 여기저기에 둘러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아름다운 식탁을 위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을 언제나 예비하셨기 때문이었다.

우리 교회의 전 교구를 네 개 팀으로 나누어 믿음팀(4, 8, 9, 16)은 노랑색, 소망팀(2, 6, 10, 14)은 파랑색, 사랑팀(3, 7, 11, 15, 17)은 빨강색, 충성팀(1, 5, 12, 13, 18)은 초록색으로 기를 표시하였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열심히 응원하는 그 함성과 열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집행위원들의 예상을 뒤엎은 충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니폼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기도 하였다. 그래도 올림픽 제1체육관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모였으니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역시 경기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강한 훈련과 두뇌 플레이가

아닌가 싶다. 일곱가지 색깔의 줄을 길게 늘어뜨려놓고 먼저 네 개 이상 낚아채는 팀이 이기게 되는 "무지개따오기"경기가 그런 유의의 종목이었다. 긴 신발을 네 명이 같이 신고 뛰는 경기인 "4인 2각 릴레이"는 처음부터 잘 뛰는 태도도 좋았으나 뒤따라가는 팀이 더 열심히 뛰어 앞지르는 모습은 통쾌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더 큰 박수가 아깝지 않았다. 초등부 학생들이 된 "육상 단거리"는 가히 올림픽게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충성팀의 학생들이 1등을 독차지한 것은 역시 그 팀의 총감독이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였을까. "구약과 신약"경기는 결단을 구하는 경기여서 손에 땀을 쥐게하는 순간순간이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여성도가 마지막까지 같은 팀에 머물러 있다가 끝에 가서 아들과 갈라져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잘한 것도 많지만 아쉽고 모자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가축끼리, 사돈끼리와 같은 끼리끼리의 경기도 추가해 보았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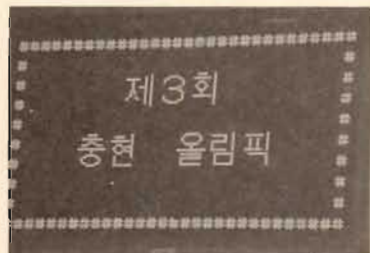
폭죽과 함께 다듬이 방망이가 등장한 믿음팀의 응원가는 가히 창조적이어서 예술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면서 짜는 듯한 더위를 이기며 체육관을 가득 메운 충현의 성도들은 더 큰 열기로 경기에 임하여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역시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아쉬운 마음만 남는가보다. 모두들 2년 후를 기약하며 일어나는 표정에서 만족감과 함께 미련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아득, 제3회 충현올림픽!
씨 유 어게인 1991년 5월!

사진으로 본 제3회 충현올림픽



제3회 충현올림픽은 3만의 성도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케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입장식



선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다짐을 받고 있는 사령탑.



충현올림픽기가 정렬한 선수단 앞을 지나가고 있다.



팀의 명예를 걸고 분투하는 선수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았다.

집행위원장과 함께 장내를 달리는 위임목사.



각 팀에서 선을 보인 가장행렬은 충현 성도들의 신앙고백의 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 동안 연습해온 마스케임을 선보이는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 팀 잘한다!"



제3회 충현올림픽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시상식.



■ 선교지소식(6) - 파라과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파라과이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세례 베푸는 장면

금년부터 우리 교회의 협동선교사로 수교하게 된 김재창 선교사는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있다.

지난 80년 파송장을 받은 김 선교사는 선교 사역 11년 동안 재파라과이 한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원주민들에 대한 선교를 위하여 남다른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지에 11개의 개척 교회를 설립하였다. 심방과 의료 선교를 통하여 마음에 복음의 씨가 틔는 성도들을 돌보며, 지난해 3월에 개원한 기도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양회도 갖고 있다.

가톨릭이 전체 종교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장로교 목사

가 2명 밖에 안수받지 않은 열도의 나라에서 복음주의적 신학을 전지하는 목회자들 양성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비전있는 신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신학교 기숙사 건축도 추진하는 중이다.

강산이 한 번쯤은 바뀌었음직한 긴 세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한 길을 택하여 그 길만을 달려온 김 선교사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심비(心碑)에 새긴채, 오늘도 열도의 땅 남미 파라과이에서 복음을 굳게 잡고 달려가고 있다.

군전도회 설립 총회 가져

우리 교회는 군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 산하에 군전도회를 두기로 하고, 지난 23일 저녁 7시 메추라기홀에서 설립 예배 및 총회를 가졌다.

우기전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 예배에서 이종운 위임목사는 “군복음화를 위하여 열매 맺는 신실한 전도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배에 이어 정하우 장로(직능전도부장)의 사회로 회칙 제정, 회장선출, 군복음화를 위한 의견교환 등이 있었다. 회장에는 김재명 장로가 선출되었다.

군중후보생 수련회 지원 등 군복음화 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군전도 사업을 전개해왔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군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연구원 수료식 오늘 저녁 7시에

성경연구원(원장 이종운 위임목사)은 91년도 제1학기의 모든 학사일정을 마치고, 오늘(26일) 저녁 7시 본당에서 그 수료식 및 이수식을 갖는다.

성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력 있는 전국일꾼으로 양육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주간성경공부반의 학제를 6학기제

로 개편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찬양대원양성부를 부활 시킴으로써 소명감과 함께 자질을 갖춘 봉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4기 교사양성부 수료자는 130명, 제4기 찬양대원양성부 수료자는 82명, 주간성경공부반 이수자는 383명이다.

중등1부 오늘 초청전도집회

중등1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 소석관 307호에서 초청전도집회를 갖는다.

금년들어 전도에 역점을 두어 온 중등1부는 이미 4월달부터 반별로 태신자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4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고, 강남에 소재한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2인 1조가 되어

교사들과 함께 전도하기에 협력했다. 또한 5월 초에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하여 4명씩 특강도 가졌다.

이날 초청전도집회에는 중등1부 찬양팀 “찬양과 찬양”(Hymn and Hymn)의 찬양, 성극 발표, 고등부 야드니엘 찬양대의 특송이 있고, 새로 나온 친구들에게 선물도 증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의 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안고

김 양 자 성도

우리 교회 의료전도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물질적 축복을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해 의료팀을 구성하여 무의촌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있다.

그러던 중 강원도 삼척군 미로면의 복음골교회가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내로서 오직 혼자만을 지켜왔던 성도(박순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친정 모친은 무당이였으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안 그녀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친정 동생들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5년 전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고 10남매의 장남이자 농부인 남편에게 시집오게 되었다. 그러나 살림은 날로 어려워져만가고 꾀박은 심하여 갔다. 그러다 90년 3월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치료비가 천만원에 이르자 남편은 자살소동을 일으키는 등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에 박순자 성도의 눈물 어린 믿음의 기도가 충현교회 의료전도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료팀은 이런 경우 영구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음골교회가 있는 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삼척에 있었다. 우리들은 차에 의약품과 진료용품을 싣고 의료팀과 함께 복음골교회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보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곳은 실로 벽촌 중에 벽촌이었으며 주민들 모두가 짐승의 우리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게다가 완전 자포자기한 심령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들은 몇 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 근본적으로 정신이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였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박순자 성도의 가정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박순자 성도의 남편은 중증의 간경화증 환자로 판명되어 교회의 구제금으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동생은 영구적으로 치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였는데, 가난한 가정 형편과 중노동으로 알콜중독자가 무척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삼척도립병원의 일반외

과 과장님과 목사님과 연결시켜 응급시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50살난 과부가 있었다. 그는 천지만물을 신으로 섬겼고, 마을의 부녀자를 모아놓고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우리들을 피해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도 하나님이 더 큰 신 같아 믿으려 해도 잘안된다며 우리들을 찾아왔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모든 불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귀를 발걸음을 돌렸다.

약 1주일 후 삼척에서 장문의 편지와 전화연락이 왔는데, 박순자 성도의 가정은 도지사로부터 급일봉과 시동생의 영구치료 혜택 카드가 나왔으며 10명의 시집식구와 50살난 과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무지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의 연약한 방문으로 귀한 영혼을 얻게 하신 주의 능력에 다시 감사하며 영광돌린다.

초등6부 작은 음악회 가져



교회학교 초등6부(부장: 손경수 장로)에서는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나사렛홀에서 제2회 안드레 운동의 결산인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지난 4월부터 태가운동으로 안드레 운동을 벌여온 초등6부는

그 동안 학교별 전도활동, 제직·교인자녀 한 교회 운동 등을 벌여 특색있는 전도활동을 해왔는데, 이날의 행사는 전도초청 잔치의 성격으로 그동안 전도한 태신자들과 함께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내일을 향한 작은 출발이라는 소재 북이 붙어 있는 이번 작은 음악회는 그 동안 초등6부 학생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91년도
제5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22일 수요일, II부 예배 시간에 91년도 제5차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종운 위임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이 세례식에서 24명이 학습을, 20명이 세례를, 1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1명이 입교하였다.

충현 세계 선교 연구원 생모집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세례교인의 십분의 일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기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보를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선교연구원(원장: 이종운 위임목

사)을 개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할 제1기생을 모집합니다.

- 자 격:
1. 만18세(고졸) 이상의 세례교인
 2. 선교사(자비량선교사) 희망자
 3. 이면·여행·교육·취업 등으로 해외체류 및 거주자
 4. 선교사를 위한 기도 후원 및

재정 후원자

5. 당회장 추천서를 받은 타고회 교인

- 기 간: 5월 31일까지
- 접수처: 사무국 행정과 (소석관 102호)
- 면 접: 6월 1일~6월 4일
- 평 일: 오후 7시~10시
- 주 일: 오후 3시~6시
- 면접장소: 세계선교위원회 (선교관 406호)